

2023년 제 40회 관세사 1차 시험 출제경향분석

제1과목 관세법개론

제1과목인 관세법개론은 총 13장으로 구성된 관세법의 모든 범위에서 고르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6문제가 출제되었던 FTA 관세특례법에서 올해도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영역별 문제 수를 작년과 비교해보면 ‘부과와 징수’ 영역은 8문제에서 3문제로 출제 비중이 줄었으며, ‘감면/환급/분할납부’와 ‘운송/통관’ 영역은 각각 2문제와 1문제씩 증가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과세요건’, ‘부과와 징수’, ‘감면/환급/분할납부’, ‘운송/통관’ 영역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법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와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출제된 문제가 많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FTA 관세특례법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FTA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선 정확히 학습하여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제2과목 무역영어

제2과목인 무역영어의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관세사 수험생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시피, 문제의 대부분은 국제협약 내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시험 역시, 무역실무 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제협약 내용이 원문 그대로 출제되었으나 일부 용어의 변경(부정어의 사용, 조동사의 변경, 주어의 변경 등)으로 수험생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모두 암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Incoterms 2020, CISG 1980, UCP 600, Hague Rules, ICC와 같이 출제 빈도가 높은 규칙 위주로 공부하되, 상대적 으로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규칙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내용 및 용어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과목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75%(30문제), 개별소비세법 15%(6문제), 주세법 10%(4문제)로 작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 전반적인 출제경향이 법조문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법조문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요 주제들에 대한 법조문의 체계적인 이해 및 암기가 중요합니다. 작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된 계산형 문제

(5문제)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였다면 계산이 가능한 간단한 유형의 문제이므로, 우선적으로 법조문에 익숙해지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법 - 전반적인 출제경향이 법조문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시험의 경우에도 사례형 없이 법조문을 중심으로 한 이론형 문제로만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조문 위주의 공부 가장 근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세법 - 법 개정 이후 공부 분량이 대폭 줄어든 파트로 주세법 관련 개념 및 법조문을 정확히 숙지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제 4과목 회계학

재무회계 75%(30문제), 원가관리회계 25%(10문제)로 작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 계산문제가 70%(28문제)로 이론을 묻기보다는 실제 금액을 도출하거나 회계처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비중이 높아, 정확한 이론학습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응용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계산연습을 권장합니다. 계산연습을 통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유형과 파트를 파악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패스하거나 전체 문제를 푼 후에 여유시간에 접근하는 방법의 수험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무회계 - 전체 30문제 중 계산문제가 63%(19문제), 이론문제가 37%(11문제)로 계산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어 빈출부분 계산에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계산문제에서는 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한 보험수리적 손익을 계산하는 문제와 같이 이전에 접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은 파트가 나와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 맞추었다면 처음 접하는 문제가 크게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는 바, 수험에서는 새롭게 접하는 파트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스킵하는 결단성도 필요합니다.

원가관리회계 - 계산문제 중심(90%)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문제의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75번 문제와 같이 계산방식을 정확히 알고 값을 도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수험생들도 풀기 어렵다는 배짱을 가지고 스킵한 후 다른 문제에 시간을 배분하는 과감성도 필요합니다.